

현역의원 對 정치신인 ‘리턴매치’

친손 對 친노 대결 진검 승부

광주 서구 갑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지역 최대 경선 격전지로 꼽히는 곳이다. 현역 의원과 도전자가 경선을 벌이는 광주지역 유일 선거구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유일한 더민주 현역의원 출마자인 박해자(59) 의원과 송갑석(49) 예비후보가 ‘본선 티켓’을 놓고 겨룬다. 이들의 경선은 ‘리턴매치’ 성격이 강하다.

더민주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해자 의원은 재선 도전이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 의원이 여성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돼 공천을 받아, 송 전 의장은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으나 낙마했다. 당시 민주통합당의 박해자 후보가 42.11%의 득표율로, 16.74%의 득표율을 얻은 무소속 송갑석 후보를 제쳤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지역의 최대 현안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특별법 개정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을 ‘독심’ 있게 밀어 붙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기업들이 매년 신규 채용시 지방대학생을 35%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육성법을 제정해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의정 활동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박 의원은 이같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면서 재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박 의원에 맞서는 송 교장은 지방대 학생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을 역임하며, 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해오다 5년2개월이라는 긴 세월동안 수감되기도 한 인물이다. 90년대 김종석·이인영 등 전대협 출신 선후배·동료들이 모두 국회에 진출했지만, 송 교장은 지역에서 기성정치권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의 쓴맛을 보았다. 특히 지난 19대 총

박해자, 풍부한 의정활동으로 재선 노려
송갑석, 소외계층 봉사 통해 인지도 높여

■ 광주 서구 갑

	
· 현 국회의원 · 전 민주당 최고위원	·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 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

선에서는 바다 민심을 다지는 등 선거 준비를 해왔지만, 서구갑이 여성전략공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경선도 해보지 못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 때문에 송 예비후보는 이번 경선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송 예비후보는 이후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폭넓게 해오며 장애청소년과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해방캠프’, ‘숲 체험’, ‘청소년 무진기행’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 높여가고 있다.

그는 “당원들과 광주시민 모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박해자가 성사됐다”면서 “당원과 지지자들이 유쾌하게 참여하고 후보들은 치열하게 경쟁하고, 더민주를 공정하게 관리해 한바탕 축제로 승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북구를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를 후보 경선은 이남재 전 손학규 대표 비서실 부실장과 이형석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의 양자대결 구도로 펼쳐진다.

이남재 후보는 손학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이고 이형석 후보는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다는 점에서 친손(친 손학규)과 친노(친 노무현) 후보의 진검 승부가 펼쳐지는 셈이다. 경선은 오는 17~18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북구 을은 국민의당 투표에서 탈락한 임내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에 나설 예정이어서 더민주에서 후보만 잘 세운다면 판을 뒤 흔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선, 이남재 후보는 40대의 참신성을 바탕으로 호남 정치 혁신의 아이콘을 자임하고 있다. 호남 정치의 중원 회복을 기치로 민심을 파고들고 있다. 그는 지난 2006년 손학규 대표의 민심대장정을 직접 기획하는 등 전략적 마인드도 강하다. 손 전 대표도 직접 나서지는 못하지만 측근 인사들에게 지원을 부탁하는 등 애를 태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이뤄진다면 이 후보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그는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라는 젊은 주자답게 패기 있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또 ‘저녁이 있는 삶, 광주에서 실현하겠습니다’며 손 전 대표와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당과 경쟁 구도에서 과거 인물로는 승리할 수 없다며 ‘새 인물로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는 이형석 후보는 셀러브런 출신의 서민후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원에서 광주시 경제부시장까지 지내면서

이남재, 손학규 전 대표의 핵심 측근
이형석, 광주 부시장 역임 경제전문가

■ 광주 북구를

	
· 전 손학규 민주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 · 전 이낙연 전남도지사 정무특보	·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활동, 인지도 및 조직력이 강하다는 평이다. 특유의 친화력과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 그도 강점이다.

이형석 후보는 ‘광주 경제 무한 책임’이라는 슬로건으로 광주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내 삶의 힘이 되는 이형석’이라는 주제로 감성적 접근에도 나서고 있다. 이형석 후보는 경제부시장을 지낸 경제계 감각, 노무현 대통령 비서관으로 중앙정치 경험, 최연소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내며 지역 풀뿌리 정치까지 경험한 준비된 주자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는 북구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온 후보”라며 “이제 북구민들이 이 후보의 손을 잡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30대 패기나 50대 관록이나

‘영원한 맞수’ ... 4년만에 재대결

순천

지역구 재선을 노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상대가 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김광진 의원(비례)의 맞대결에서 결정하게 됐다. 애초 서갑원 전 의원까지 경쟁했으나 공천 과정에서 아쉽게 탈락했다.

노 전 시장과 김 의원의 경선은 본선만큼 주목받는 흥행가로 꼽힌다. 이 경선은 자치단체장 출신과 현직 의원의 대결, 50대와 30대의 세대 간 대결, 매산고와 순천고 출신의 대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노 전 시장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기획, 유치한 주인공이다. 따라서 현재 순천만에 관광객이 몰리고 순천이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대한 1등 공신이다. 노 전 시장은 당시 일부 지역정치권의 반대를 물리치고 순천정원박람회를 밀어붙였다.

강한 추진력을 인정받아 순천시민에게는 ‘일 잘하는 시장’이란 평을 받았다.

하지만, 박람회와 앞두고 시장직을 중도 사퇴,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은 이번 경선전 최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직도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꾸준히 지역 바닥을 다지며 선거 준비를 해온 관계로 조직력은 우수하다. 또 그는 매산고 후배인 서 전 의원의 컷오프로 심리적 부담을 덜었다. 지난 2014년 보궐선거 경선에서 노 전 시장은 서 전 의원에 패배했다.

비례대표로 현직인 김 의원은 패기를 앞세워 관록의 노 전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선거 초반 인지도가 낮아 고전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지지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

김광진, 필리버스터로 지지도 상승 중
노관규, 순천만박람회 성공 개최 주역

■ 순천

	
· 현 국회의원 · 현 순천대 총동창회 부회장	· 전 순천시장 (민선 4~5기) · 현 변호사

다고 자평하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갱 한 것이 유권자 사이에 화자하면서 인지도를 급속도로 높인 부분에 고무돼 있다.

조직력은 낮지만 폭발력을 갖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에 가장 위협적인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컷오프 후보들이 노 전 시장 측에 비우호적이라고 판단, 이들 지지층을 흡수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성소수자 옹호 발언에 따른 기독교계의 반발과 친노에 가까운 이미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암·무안·신안

영암·무안·신안은 이번 총선에서 전남지역 최대 박매치 지역구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선거구에선 현역인 이윤석 의원과 도전자인 서삼석 전 무안 군수가 본선 티켓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다. 양 후보는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모바일투표·현장투표 합산 51.2%를 기록, 48.8%를 차지한 서 전 군수를 가까스로 이겼었다. 하지만 이번 4·13 총선 분위기는 4년 전에 비해 변수가 많다는 점에서 양 후보의 대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대 당시 국회에 첫 입성한 이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원내부대표 그리고 전남도당위원장과 조직본부장·수석대변인·당무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전남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더민주 당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과 조직본부장을 맡는 등 당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또 지난 2013년 예산편성 당시 300명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지역예산을 증액, 지역발전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총선에서 ‘힘 있는 3선 의원’, ‘능력이 검증된 성실한 의원’, ‘중앙에서 통하는 의원’이라는 가치를 토대로 더 많은 지역예산 확보와 지역발전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지역민심이 예전같지 않다는 점은 고민이다. 이에 맞서는 서 전 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전남도

서삼석, 행정경험 풍부 조직력 갖춰
이윤석, 예산 확보·지역 발전 기여

■ 영암·무안·신안

	
· 전 무안군수(민선 3~5기) · 전 5·6대 전남도의원	· 현 18·19대 국회의원 · 현 더불어민주당 조직본부장

의원, 무안군수, 민주당 전남도당 상무위원, 중앙위원 등을 역임했다. 무안 출신인 서 후보의 최대 강점은 정치와 행정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이다. 특히 무안에선 3선 군수를 지냈는데, 10년 이상 지역민과 부대끼며 만들어낸 높은 인지도와 짜임새 있는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소금처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그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뒤 ‘서남부권 100년 대계’를 위한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각오다.

본선행 티켓을 놓고 벌이는 이번 경선의 최대 관전포인트는 본선에서 맞붙을 국민의당 후보와 대결에서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점이다. /이종행기자 glee@kwangju.co.kr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자꾸 눈물이 흐르나요?



유루증 : 눈물이 넘쳐 흘러서 눈 밑이 젖는 상태
가벼운 증상은 눈가에 눈물이 고이는 정도이나 증상이 심할 경우 바깥으로 눈물이 흐르고 눈곱이 끼거나 고름이 나오기도 하며, 눈가 짓무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치료방법 :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비정상 위치에 있는 속눈썹 제거, 약물 투여, 비루관 개통·확장술, 외과적인 수술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용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인



당뇨병-갑상선 건강강좌

- 좌장 · 이문규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이사장)
- 강사 · 김재현 교수(삼성서울병원, 현 당뇨병학회 총무이사)
- 강호철 교수(화순전대병원)
- 김순호 부장(광주기독병원)
- 김상용 교수(조선대병원, 현 당뇨병학회 수석 부총무)
- 양태영 원장(태영21병원, 현 당뇨병학회 일차진료 이사)

일시 · 2016년 3월 26일(토) 오후 3:30~4:30

장소 · 태영21병원 2층 세미나실

문의 · 062)362-0075 (광주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21병원 제22회 정기 음악회
3월 18일(금) PM 6:30

